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사명자대회 은혜롭게 8일째 진행 중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들 오늘도 행진하다-

지난주일 시작된 사명자 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사명자 대회 공동기도를 위해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고, 24시간 연속 기도를 통해 전 성도가 맑은 시간에 교회에서 주어진 기도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한가지로 기도하고 있으며 70인 전도대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각 교구 별로 주력 부서를 선정하여 토요일 노방전도에 나선다.

또한 금요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밤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기도와 전도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히 손으로 씻어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홀(101호)과 옆의 미스바 홀(102호)을 24시간 개방하여 성도들이 언제든지 사명자 대회기간 중 와서 편히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와 천지에 진동하기를 바란다.

각 순서별 금주의 사명자 대회 기도, 전도담당자는 3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 서울교회 대치역과 자매결연 맺는다

- 지역사회 전도의 실천 -

서울교회는 지하철선교회에 가입하여 성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인 3호선 대치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복음전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교회는 대치역에 우산을 비치하고 역내 도서실에서 비치할 도서류를 지원하며 이종운 목사의 말씀 판 등을 설치하여 오가는 이들이 쉽게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전도 발판으로 삼게 된다.

▷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한다

2001 사명자 대회 본부에서는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지역을 확정 발표하였다.

매 주일 성경공부가 끝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노방전도는 특히 전도의 경험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방전도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고, 각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전도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교구별 가을야외배일정

- 3,4교구/ 18일(목)경기도 산정호수, 오전9시 교회출발
- 9교구/ 16일(화)남이섬, 오전9시 교회출발 (9:30어린이대공원)
- 10교구/ 20일(토)다빈치, 오후7시
- 11,12교구/ 23일(화)경기도 산정호수, 오전9:30 교회출발
- 1,2교구/ 19일(금)강원도 정동진, 오전6시 교회출발
- 5,6,7,8교구/ 19일(금)강원도 치악산 관광농원, 오전9시 교회출발

지난주 우리교회는



- ① 청년부 헌신예배 -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 ②③ 사명자 대회 발대식 -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들이 되어 맡기신 사명 감당하자.



- 유치부: 한티공원 앞
- 유년부: 삼성아파트 앞 삼거리
- 초등부: 대치역 4개 출구, 교회쪽 2번 출구
- 중등부: 도곡역 4개 출구
- 고등부: 롯데백화점 사거리
- 대학부: 삼성병원(입원병동)
- 청년부: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새가족부: 은마아파트 앞
- 장년1~5부: 미도 아파트 삼거리, 학여울역

-태신자 명단- (2001년 10월 12일 현재)

손범선, 정수관, 윤정수, 이철수, 권순두, 홍양희, 한번은, 김영희, 연미자, 김준규, 유용순, 이동순, 전용환, 이춘희, 최형식, 전용숙, 조주일, 전용섭, 남형남, 남형근, 남형일, 남수원, 최주락, 이선자, 조성기, 이우리, 최민정, 김희정, 박원이, 이영학, 이상우, 이영주, 심숙연, 정말순, 정성근, 문유섭, 김강자, 이정우, 박동철, 임명자, 박지혜, 박지윤, 박병선, 박용목, 채영이, 박혜원, 박광원, 박성원, 이용재, 손명진, 이병용, 마정숙, 노상욱
(다음호에 계속)

▷ 제12회 어린이가을 종합 발표회

10월20일(토)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어린이 가을 종합 발표회가 10월 20일(토)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발표회는 강남노회 산하 전교회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며, 참가자들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연마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교육 1국에서 발표회에 참가하여 함께 경쟁을 하게된다. 학부모님과 성도들의 많은 참관을 기대한다.

이번주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개역개정판 행 20:24)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NIV Ac 20:24)

이사야서 강해

기도와 응답

(이사야 51장 9절 ~ 16절)

우리 앞에 태산같이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팔을 펴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팔을 펴시어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중운 목사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일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또 무언가 꼭 필요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복을 받은 것은 큰 은혜입니다.

1. 이사야의 기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9절).

여호와와 팔은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호와와 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주석 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와 팔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되 적을 무찔러 주시고 구원 약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소서'를 두 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팔이 잠든 상태에 누어있고 활동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같이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에게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깨달을 사람만이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때의 하나님은 라합(애굽, 교만 또는 교만한 자)을 저미시고 용(애굽, 바다의 짐승)을 찢으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신 분이십니다(10절). 이사야는 이처럼 과거에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지금도 그 능력을 팔을 펴시어 바벨론을 격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체협에서 나온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태산같이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팔을 펴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팔을 펴시어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사 속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미래의 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11절).

'구속받은 자들'은 히브리어로 '페두'라고 읽는 이 말은 대신 희생된 자들이 있으므로 구원되어 나온 자들을 가리킵니다(사 43:3). 이스라엘은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키고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고레스로 인해 패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들의 귀환길은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는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환희의 노래를 부며 걷게 됩니다. 그들의 현재에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11절) 앞으로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11절) 라고 합니다. 과거의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니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였거늘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선교사 Adrian Judson은 항상 기쁨에 넘쳐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천사라고 했습니다. Trumbull 목사는 Judson의 기쁨의 얼굴을 보고 감동이 되어 주의 종이 되었고 그의 얼굴에 대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3. 두려워 말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12절).

영원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 시며 위로자가 되시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자는 하나님이시므로(12절) 죽을 인생인 바벨론을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 곧 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도끼를 물위에 뜨게 하시고 태양을 머물게도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위로를 얻게 됩니다.

원수는 죽을 사람이고 풀 같이 시들 존재입니다. 그러

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찢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13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이사야는 너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인간을 두려워하느냐고 합니다. 학대자의 분노는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침략자가 분노하여 진격해 올 때는 두려웠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여 지금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히 놓일 것이니"(14절).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놓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도 아니하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하며 양식이 꺾어져 주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15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듯한 큰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16절).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므로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의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주의 사명자대회 각 주력 부서·교구 안내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0.19	1, 2, 3, 교구	안드레, 루디아	대학, 청년부	할렐루야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월 일	교 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0.20	1, 2, 교구	아브라함, 사라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24시간 연속 기도회 주력교구

10.14(주)	10.15(월)	10.16(화)	10.17(수)	10.18(목)	10.19(금)	10.20(토)	10.21(주)
5교구	2교구	9교구	4교구	11교구	6교구	1교구	6교구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인식년 기간동안 또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일년동안 쉬면서 많은 교회도 탐방하고 알차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을 기약하리라 다짐하였는데 벌써 1년이 되었으니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장로상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였기에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본이 되는 모습으로 탄생하고 싶어 계획은 산더미 같이 하였고 의욕만은 대단하였으나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작년 12월25일 서울교회 입당과 함께 인식년을 맞이하면서 서울교회를 위해 너무도 많은 수고와 맘을 흘린 동료 장로님들과 모든 제직들의 수고이다.

입당감사 10대 행사와 년 중 계획을 진행하느라고 부지런히 땀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울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만 보였구나 새삼 느꼈다. 무엇보다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교구를 돌보며 교회학교와 새로 등록된 새신자 심방 그리고 행사의 주역을 감당하기 위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움직여서

몸도 마음도 피곤할 터인데 언제나 용사 같으시기만 하다. 이 모든 일들을 선두에서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더 많이 바쁘셔서 기도와 말씀준비 그리고 행사준비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더 해야겠다. 10월4일 강남노회 영동 시찰회에 가서 서울교회 현황보고 사항 중 2001년 3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의 기간 중 무려 25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졌었다고 보고했더니 모든 이들이 놀라고 놀라워했다.

이제 다시 당회원이 되어 시무장로가 되려고 한다. 20년 전 장로 안수를 받고 당회에 들어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회의 진행과정과 발언하는 과정, 의제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가를 3년 동안 조용히 배우던 그때를 거울삼아 다시 한번 조년생의 자세로 돌아가려 한다. 할 일 많은 교회에 부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도와 순종의 자세로 봉사하려고 한다.

주님의 명령이면 무엇에나 순종하며 당회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를 바로 세워 가며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인정받는 장로상을 보이기 위해 더욱 부름 끊고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고 싶다.

부름 받음에 감사합니다.

박철훈 장로(11교구)

다. 그 동안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것,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썼던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등으로 수없이 방황하고 고민하였던 것들은 기준이 없었기에 더 고민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임을 다짐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 같은 은혜를 받은 청년회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양식을 나누도록 교사님들께서 힘써주셨습니다. 주안에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 이후로 우리가 청년부를 통해 더 하나님 앞에 겸비되고 경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헌신예배를 마치고

노대의 (청년부)

지난주 청년부 헌신예배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목사님으로부터 교사님, 회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드리겠다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음의 때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였을 때,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 또한 청년부에 귀한 은혜로 떨어졌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의지하고 맡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

간증

180도로 바뀐 생활

김원중 성도 (11교구)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시골에서 올라와 큰딸 집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실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년 동안 등져왔던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그로 인하여 금이 갔던 부부간의 관계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었으며, 외부와의 단절되었던 대화의 문호가 개방되고 암담하고 소원하게만 느꼈던 가족적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저는 딸의 안내로 처음 서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맑고 마냥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생활을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할 것 없이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그것도 조용히, 말없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성도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가지 실례로 지난 8월 19일 12시 30분 경에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성도가 사랑부원에게 다가와서 식사를 다했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젊은 성도는 그를 안고 식당 뒤에 놓여 있던 휠체어에 앉혀주고 자기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성도가 말없이 접근하여 그의 휠체어를 밀고 가 엘리베이터에 태워주고 도중에 내리더군요.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일층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성도가 휠체어를 밀고 사랑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먼저 만나는 이가 거동이 불편한 사랑부원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회의 구성요소로 내재하고 있는 성도들에 일맥상통하고 있는 정기를 실감했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수준 높은 설교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으며 저는 여기에 매료되어 귀한 말씀을 놓칠세라 뇌리 한 구석에 차곡차곡 말씀들을 입력해 쌓아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제 자신이 이 교회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좁은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교회에 저를 인도해 주신 이규정 목사님과 한영순 집사님,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처남, 김현영 내외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이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왔어요

10년만에 다시 왔습니다

홍성연 권사, 금성섭 집사, 남경애 성도 - 10년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금: 지금 서울교회가 세워진 곳에 있던 교회를 섬기던 중 91년 7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뼈를 자르는 두 번의 수술 후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세 번의 수술을 받고 겨우 얼굴이 제 형태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과 남에게 얼굴을 보이기 싫어 어머니만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계속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오정수 장로님을 만나서 전에 섬기던 교회 자리에 서울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다시 불러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홍: 주일 성수하며 청, 장년부 회장으로 열심히 섬기던 중 아들(금집사)이 사고를 만나고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어 미국에서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회복을 위해 예배를 드리려 했으나 아들이 문도 열어주지 않아 안타까운 가운데 새벽제단을 쌓아왔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니 가슴이 벅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남: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새가족부를 통해 많은 성도를 알게 되어 기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위로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늦게 왔지만 열심히 해서 교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 시 소감을 말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고요?

금: 10년만에 옛 교회 터에 세워진 서울교회에 등록하

고 보니 너무 감격하여 말도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다.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도 이젠 다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10년간 못 다한 일들을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홍: 어떻게 나와 가족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잡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
서울교 새가족부

70인 전도대 한명순 집사(10교구)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시는지요?" 조금은 남루해 보이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의아하다는 듯이 힐끗 쳐다보고 얼굴을 외면하며 주춤거렸다. 이 순간 주님을 전하지 못하면 이 아저씨는 영영 불행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뜨겁고 강하게 솟구쳐 올랐기에 다시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넸다. 무척이나 황당해하며,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 주나요?!!"라고 통명스럽게 말한다.

"아! 그럼요. 교회란 곳은 저처럼 허물많은 사람이나 빈곤한 자나 부요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온전치 못함을 인식하는 모든 이들이 오는 곳인데요 뭐..." 이렇듯 대답은 했으나 의미심장한 반문에 웬지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 왔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들이 위선이 아닌 진실 된 사랑으로 말보다 먼저 실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전도하려고 다가오는 자가 없었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교회 다니는 저희들이 평소에 모범 된 생활을 잘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수년 전에 직장을 실직하고, 가정 역시 오래 전에 파탄이 되어 육신의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각박한 세상을 비판하며 절망 속에 하루하루 전전공공하는 터였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 무척 자신을 다듬으며 애쓰시는 선량한 분이셨다. 거처라곤 비닐로 막을 천 두어 평 남짓한 곳이 삶의 터전 전부인 것이다.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품팔이하는 일 외에는 어느 사람과도 대화를 나눈 적 없이 세상과는 아주 높은 담을 쌓고 지내었노라 하신 아저씨는 전화로 복음을 제시할 적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다 하시며, 머지않아 어려운 일들

이 해결되고 나면 꼭 예수님을 잘 믿어 보겠다고 요즘 들어 자주 말씀하신다. 이러한 아저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고 도우셔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사랑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음미하며 삶 속에서 순간 순간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파수꾼과 전도의 사도가 된 많은 성도님들!

우리 70인 전도대에 많이 동참해서서 복음 전하는 자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리봅시다.

새벽이 아름답다



사명자대회 시작과 매를 같이 하여 새벽기도회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본당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교인이 꾸준히 증가하여 웨스트민스터 홀이 비좁아지게 된 때문이다.

목사님은 지난 9일 새벽기도회 설교에서 주님께서도 새벽에 즐겨 기도하셨으며 또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에 비유되었다고 하시며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이란 이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하셨다. 또한 이 목사님은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비결은 밤 10시에 TV를 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기도를 통해 일본의 압제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조국을 일으켰다. 오늘도 아름다운 새벽의 기도가 조국을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의 자녀를 지킬 것이다. 새벽기도회에 본당의 넓은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물결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순례자 (허숙)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8일(목)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 채플 설교를 한다.
- 김상철 장로는 10월 9일 미려한국신문 창립총회서 대표이사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이사/ 최금자 권사/ 장동 주공아파트/ 997-7384
이사/ 박용현 성도, 임춘자 성도/ 파천/ 503-0834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김춘제 권사 서창보 집사 -61회 생신 감사
-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가정: 배영대 목사 (방배동 신성교회, 동문회 부회장)
-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제1권사회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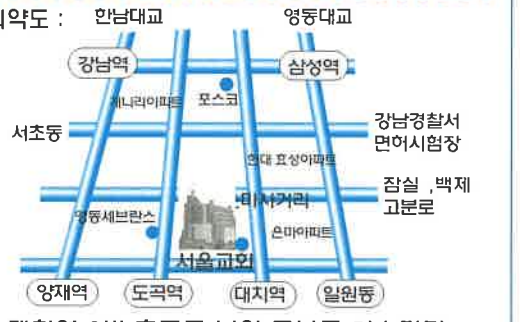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1 사명자 대회 7대기도제목을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